

노동조합 일상활동, 간부의 자세와 역할

1. 용기를 내 간부로 나섰는데

○ 나는 어쩌다 간부가 되었는가?

- 1) 역사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
- 2) 인간성 좋고 희생정신이 강해서 ?
- 3) 떠밀려서 ? - 노조 간부 하면 장가갈 수 있다고 해서 / 위원장이 동문이라서
- 4) 내가 왜 간부가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

○ 간부활동의 어려움

- 따라주지 않는 조합원
- 할수록 힘겹다 (잘해보고 싶지만 능력이 딸린다)
-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노조간부의 노동시간은?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임금 적고 승진 안되지, 해고에 구속에 ...)

○ 뒤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 그동안 우리가 해낸 것

- 1) 임금 올려 생활 나아졌고, 직장생활도 편해졌다
- 2) 노동자가 자기 이름을 찾았다 - 노동운동은 사람을 바꾼다
- 3) 민주노조 건설 - 민주주의
- 4) 노동자 당당한 사회세력으로
대통령 후보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방문

○ 노동운동이란?

- 사람을 바꾸는 운동이다 = 인간선언, 인간성 회복 운동
- 노동조건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다
- 노동운동은 가장 순수하고 정의로운 운동이다(전태일) / 아름다운 저항-아름다운 청년

비록 순간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지혜를 짜내고 밤잠 못 자는 번민 끝에 이겨내고 나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전국 방방곡곡의 노동전사들이 있기에 세상을 조금씩 발전한다. 바로 그 핵심에 노조간부들이 있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2.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인가?

1) 노동조합의 역사

- 스스로 만든 조직,
- 노동조합은 19세기 선발공업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때의 노동조합은 길드(guild)의 계승자 장인들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다음 시기에 출현한 것은 미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에 입각한 조합으로서 독일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이 발생하였다. 독일식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근로자라는 의식보다 사회 전체의 노동자층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었다.
- 한국 노동조합의 효시 : 1898년 성진 부두노동자 47명.

2) 노동조합의 법적 정의 :

‘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기도 하고 보장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자(조합원)들은 정말 천차만별(차이)이다 ...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 나이, 남성여성, 직종(부서), 학력, 고향, 동문, 성격, 성향
- 빨간 머리띠를 두고 의견
- 그만큼 해달라는 것도 다양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 함께 뭘 할 수 있을지 의문 들 정도로
-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입시키려 애쓰게 되는 이유는/노동운동이 쪽수운동이기에
- 노동조합이 참 묘하다 : 어쨌든 쪽수가 많으면 힘이 저절로 생겨
- 대중조직 : 다양함을 하나로 통일해 나가야 : 민주주의(파벌, 특정조직 중심 운영 X)
- 개방성, 공개성, 민주성
- “노동자는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한 것만 행동에 옮긴다”

○ 노동자들은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 노동자조직 = 계급조직

- 하지만 노동자, 봉급쟁이, 샐러리맨, 언론인, 현업언론인...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크기에 노조로 뭉친다.

- 직장생활 하면서 사용주가 아니라는 것
- 고용된 사람이기에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소박하게는 좀 더 나은 직장생활, 안정된 미래를 꿈꾸다 보면 노조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

- 노동자라는 계급의 공통의 이해관계
- 자주성, 투쟁성

○ 다양함 → 경쟁과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 자본은 이것을 노리고 분열공작

○ 차이보다는 동질성이 더 강한 노동자들.

→ 계급성에 주목하고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면 대처 가능

3. 노동조합의 체계와 일상활동, 부서활동

1)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만든 자주적 결사체이다

- 노동자 대중이 자본가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 조직
- 대중성과 계급성을 그 본성으로 하면서 자주성, 민주성이 필수요건

2) 노동조합의 조직

☞ 조직이란?

- 개개의 요소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일체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형태
-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은 것
- 살아있는 조직, 강한 노조는 강경한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참여로부터 나온다.

▷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대회 ; 규약, 임원선거, 재정, 사업, 쟁의행위 등

▷ 집행기관

-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 총회,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노동조합 활동 방향수립

▷ 감사기관

- 회계감사 ; 노동조합 회계감사. 금속노조 감사위원회

▷ 대의원 ; 현장 부서활동의 조직가, 일상활동의 주도자

▷ 집행부(지도부)

노동조합이 나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교육 홍보 등 전문 부서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 조합활동 전체에 통일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

3)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은 인체와 같다

사람은 유기체이다. 모든 기관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명활동을 한다. 노동조합 역시 유기적이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 듯이 노동조합도 건강한 조직체가 민주노조를 만든다

- 다양하나 공통점이 큰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게 노조활동

1. 사람	2. 노 조	3. 하는 일	4. 고장나면?
5. 두뇌	6. 위 원 장, 지부장, 지회장	7. 노조의 얼굴	8. 뇌 사
9. 심장	10. 집 행 부	11. 부서활동 / 조합원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성. 방향성 제시	12. 심장마비
13. 척추	14. 대 의 원	15. 집행부와 조합원을 연결(쌍방통행 / 야당이 아니다)	16. 곤란
17. 관절	18. 현장조직	19. 조합원들의 풀뿌리 조직 / 조합원들 스스로 움직인다	20. 동맥경화
21.	22. 조 합 원	23. 노조 그 자체	24. 간부만 움직이는 25. 관료주의

○ 지도성과 대중성의 올바른 결합

- 지도성 : 노조 방침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발휘하는 지도력 (집행부의 안이 있어야 / 결단)
- 대중성 : 조합원 상태에 걸맞은 방침 결정하고 추진해야 : 공개, 현장토론, 간담회, 설문조사, 판단근거

○ 민주주의와 집단규율

- “노동자는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한 것만 행동에 옮긴다” : 공개와 투명한 운영,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 참여 보장, 주요결정 참여(의결기관) : ‘소름끼치는 회의’ 하지만 특히 대중조직에서 회의활동은 매우 중요. 올바른 운영 원칙이 해결책
- 민주주의와 함께 규율도 매우 중요 : 결정과정은 민주주의로, 결정되면 반드시 실천하고 책임지게 : 결정할 때는 적극 참여하고 집행할 때는 무책임한 게 가장 최악 : 조합비(의무금), 결정사항 앞장서서 실천, 조직의 비밀 지키기 : 간부들이 규율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
- 노조운영의 기풍과 전통이 중요하다

○ 일상활동

- 일상활동의 중요성 : 갑자기 잘하는 노조 없어 /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 움직이는 노조
- 노조의 힘은 바로 노조의 일상활동에서 나온다

- 벼락치지 공부에 한계가 있듯
- 늘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노조
- 노동운동은 상대가 있는 운동이다
(우리가 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의 힘이 직장을 압도하는 것)
- 일상활동이 없으면 회사의 잦은 공세에 대책이 없고 노조 힘은 쪼그라 든다
: 가랑비에 옷 젖는다(신경영전략)

가. 노동운동은 불만에서 시작한다 : 평소에 작은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

- 조합원의 불만이 많은 곳은 살아있는 노조(오히려 무관심이 무서운 것)
- 애가 울듯 모순은 불편, 불평, 불만으로 초기에 표현돼
- 노동조합은 대중조직

: 노동조합을 너무 수준 높고 고상하게만 보지 말고 조합원의 현실적인 불만 해결 중요시 해야

- : 자신의 어려움을 노조라는 수단으로 해결해보려는 소박한 기대를 중요하게 봐야
- : 노조는 경제이익, 노조원 고충, 일상 공세 대응 없으면 죽는다

나. 불만을 요구와 정책으로 승화시키자

- 노동자의 불만에는 공통점이 있다 : 직장생활의 노자관계에서 연유
- 원인도 비슷하고 해결도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
- 불평과 불만을 나쁘게 보지 말고 공통의 문제, 해결가능, 해결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 나아가 개별로 해결할 수 없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불만→요구)
- 수없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 요구를 통일시켜 정책대안을 만들고
: 개인.부서.직종별 요구 → 전체요구로 / 낮은 요구 → 높은 요구 → 근본 요구

다. 해결사노조× 자판기노조× = 조합원이 끊임없이 모이고 움직이게 하자

- 단, 조심할 것이 있다.
- 요구를 해결하는 과정은 반드시 조직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남겨야
- 조합원의 불만과 요구를 집행부가 다 해결해주는 식은 곤란
-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은 조합원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 해결사노조 자판기노조는 조합원을 말 많은 구경꾼으로 만들 뿐
- “작은 실천이라도 스스로 참여해서 이겨보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집단에게 잠재해있는 힘을 발견하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한다”
- 조합원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스스로 단련되게 만드는 일상활동
- 이것에 도움을 주는 각 부서 일상활동

○ 부서활동

가. 조직활동

- 방향 : 양(조직확대)과 질(조직강화) - ‘불만’을 주목하라
- 다른 부서활동은 조직활동과 연관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주는 방식으로

돼야

- 조합원이 자주 모이고, 떠들고, 함께 뭔가를 해보게 만드는 것이 조직활동
- 회사의 조직활동을 주목해야
- 상집, 대의원 활동 시간 확보해야
- 집행부와 조합원 자주 만나기(예 - 주1회 현장 순회/부서별 간담회/애경사는 기본)
- 조합원 모임(취미모임, 동아리 등)
- 연대조직활동

나. 교육.선전활동

- 천차만별인 조합원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활동
- 단협에 교육시간 확보해야 / 교육예산과 사업계획 강화 필요
- 다양한 대상에 걸맞은 교육 돼야
- 선전 : 노조가 뭐하나, 회사가 뭐하나, 조합원은 뭐하나 꾸준히 알리는 활동
(시기에 걸맞은 선정방향과 함께 조합원 참여가 많아야 하는 게 노조 선전활동의 특징)
- 선전도 조합원의 불만(→요구)에 주목해 요구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써야
/ 그래야 읽혀
- 교육선전 모두 꾸준해야(단번에 효과 볼 수 없는 활동)

다. 정책.법규활동

- 앞에서 살펴 본 현장의 요구 귀 기울여 노조의 정책으로 만드는 게 기본
- 아울러 노동운동 전체 방향에도 맞아야
- 노동자 살림살이 직장생활과 관련된 법규활동(상급단체와 함께) : 법률 서비스

라. 조사통계활동

- 노조의 기본방침과 정책 세우려면 조사활동 기본('조사 없이 발언권 없다')
- 노조관련 기본 자료 모으고 분석, 노사관계.회사 자본쪽.상급단체.일반정세.기타 자료와 통계
- 조합원 임금, 노동조건, 생활실태, 의식, 요구, 조직실태 / 기업경영현황과 노무관리 / 주변정세
- 쉬운 조사부터 성실히 해야(조합원 상태,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 등)

라. 문화체육활동

- 조합원의 삶과 생활에 다가가는 노조활동
- 기업문화에 대응하는 노동문화 찾기

마. 복지.산재직업병 추방 활동

- 복지 : 조합원 손에 잡히는 도움을 주는 활동
: 노조 = 대중조직 관점에서 적극 추진하면 조합원 참여 넓히는 데 큰 도움
: '노조가 있으니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 산재직업병 추방 활동
: 조합원 관심 돈 → 건강(나이 들수록, 노동강도 강화될수록)

- : 산안 담당자 두는 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지키는 일부터
- : 노조운동이 신경 써야 할 새롭고 중요한 분야
- : 대우조선노조 산재직업병 추방 투쟁

바. 여성.대외

- 여성 직장생활은 특별히 어려워 / 조합원 가입도 힘든 경우도 / 노조에서 따로 대책 세워야
- 대외활동 : 산별시대 노조의 기본 일상활동으로 자리잡아야

4. 노동운동에도 품질이 있다.

- 기업노조운동을 벗어나는 일은 실천의 측면에서는 연대활동 강화하는 것
- 저품질 노동운동 - 기업별노조운동
 - 감기로 끝날 일을 폐렴으로 고생한 IMF 2년 - 1997년 1998년 1999년
 - IMF 2년 동안 정부와 자본은 노동운동의 약점을 집중 공격
 - 노동운동은 어디가 고장나 있었나?(기업별 노조운동의 약점)
 - 1) 노조의 힘은 쪽수에서 나오는데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 운동 방식으로는 갈수록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2) 기업별노조 운동 방식은 고용불안 문제에 속수무책이다.
 - 3) 기업별노조 운동 방식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운동으로 결국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고품질 노동운동 - 산별노조 + 정치세력화
 - 1) 산별노조는 크다 : 쪽수가 힘이다
 - 독일 : 3,000만 가운데 조직 노동자 1,300만명(42%), 노조수 16개
 - 한 개 노조당 68만명
 - 한국 : 1,500만 가운데 조직 노동자 160만명(10.1%), 노조수 6,500개
 - 2) 크니까 힘이 세다
 - 조직 + 사람 + 돈 = 못할 게 없다.
 - 독일금속노조 95년 경고파업 ... 320만 조합원 가운데 2만명 경고파업 10일 승리
프랑스공공노조 96년 연금, 사회복지 개혁에 맞서 총파업
→ '프랑스는 정지되었다' ... 노조와 정부 사회정상 회담 개최 타결 승리
이탈리아 연금제도 개혁 맞서 총파업 ... 200만명 참가
 - 3) 힘이 세니까 이긴다
 - 독일금속노조 95년 경고파업 승리 ... 주35시간 쟁취

- 프랑스공공노조 96년 파업 ... 우파 정부 굴복, 다음 선거에서 좌파수상 들어서
- 미국 97년 UPS 파업투쟁 ... 승리

4) 외국은 모두 노동자 정치운동 활발 = 제도개선 / 사회보장 / 정권 장악

5. 간부의 자세와 역할

1) 도덕성과 원칙을 지키는 간부

- 도덕성은 노동운동의 생명(돈문제.불륜.도박등 금물)
- 대자본 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회사관계자를 만나면 반드시 공개하는 기풍)

2)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간부 : 나는 왜 노동조합을 하는가?

- 노조를 시작하던 첫 마음을 잃지 말자
- 전태일 정신에 깃든 노동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자
- 힘들 때는 열사들을 만나자

3)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는 간부

- '너무 힘들다' → 어디서 힘을 얻을까 → 동지와 동지들의 경험과 동지들의 활동에서!
- '아는 게 없고 경험이 부족해 뭘 할지 모르겠다'(회의운영, 조직활동, 교육선전활동...)
→ 왕도는 없다. 그러나 빨리 벗어나야
- 실무력과 지도력을 기르자 (배움에 투자할 줄 아는 간부)
 - : 조합원과 주위 간부에게 배우자
 - : 다른 노조의 경험을 배우자
 - : 상급단체에서 배우자
 - : 책에서 배우자
 - : 정보에서 배우자(소식지, 인터넷)

4) 해결사가 아니라 조합원을 움직이는 간부

- 조합원의 요구를 따주는 게 아니라 '따보는 경험'을 하게 하라
 - : 우리가 해냈다는 자신감,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깨달음이 조합원을 키운다
 - : 실천(파업)은 노동자 학교
-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탓하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줄 아는 간부
 - : 부모나 형의 마음으로
 - : 끈기를 갖고
 - : 민주주의, 공개와 투명, 주1회 현장방문등

5) 연대활동에 앞장서는 간부

- 지금은 산별시대, 기업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 돼서는 안돼
- 자기 노조 이기주의 벗어나야
- 연대활동 앞장, 작은 일이라도 조합원에게 알려 '전국 노동자 연결하는 전령사' 돼야
- 상급단체 강화, 상급단체 많이 써먹어라